

전주문화재단 김선정·박종진 팀장 유공자 표창

(재)전주문화재단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유공자 표창에서 김선정 팀장과 박종진 팀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국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적이 탁월한 직원들을 표창하기에 그 의미가 크다. 김선정 팀장은 전주문화재단의 비전과 전략수립을 주도하는 등 시대적 담론을 지역사회 및 예술가들과 함께 고민해 사업화 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별상을 수상한 박종진 팀장은 지역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시민, 상인, 예술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문화허브를 구축하고 국가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그동안 예술의 가치 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한 결과를 일정 부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수상한 팀장들에게 축하를 보냈다.

한편, 시상식은 24일 서울 구로아트밸리에서 열린다.



/정은성기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전북농협, 강원·경북 산불피해 성금 3000만원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라북도조합연합회(위원장 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는 2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재난을 당한 강원·경북 지역 이재민들의 구호 활동과 농업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 지역 주민과 농업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농협 임직원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을 떠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일미칠근(一米七斤)의 자세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위원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농업인과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강릉 산



불피해 이재민과 농업인의 구호 활동과 농업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을 넘어 상생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에 따른 농업피해 발생 시 농작물, 농업시설 등의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재해구호 기금을 관내 농축협이 함께 조성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전주시, 시민단체와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전주시는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3일 송천초등학교 인근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덕진지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덕진지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이날 캠페인에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안전벨트 착용하기 ▲무단횡단 금지 ▲운전 시 스마트폰 사용 안 하기 등의 내용을 홍보했다.

시는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과 더불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30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4대를 설치하고 17곳의 통학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동시에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상시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 준수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지키는 소중한 습관인 만큼 모든 시민들께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울진 산불피해 이재민 위문품 전달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22일 울진군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담은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인영희), 남원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쳐 마련된 것으로, 남원시 12개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와 기업, 시민 등이 적극 참여해 총 2천여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이 모아졌다.

정일석 사무처장은 울진군 관계자에게 직접 후원금품을 전달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남원시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개선남원시연합회, 교육·총회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2022년 생활개선 활력화과 지역의 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개선남원시연합회 교육 및 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 및 총회는 3저 3고 운동 실천결의(쌀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비료 2kg 줄이기, 생산비를 줄이기, 밥 맛 좋은 품종을 재배, 원전미 비율을 높이고, 쌀 소비를 늘린다)를 통해 생활개선회가 농업·농촌에서 모범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저탄소 농업 실천사항으로 벼 중간 물매기는 2주 이상 플라스틱, 비닐 등 사용 후 수거하고 재활용 늘리기, 겨울철 시설원에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연료 줄이기, 작물재배에 사용하는 물 절약하기, 폐 영농자재(농약병, 비료포대 등) 수거하고, 소각 금지, 시설하우스·축사시설 적정온도 유지하기, 가축 적정 사육밀도 준수하기 등을 다짐했다.

또한 불철 영농 안전을 위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해 농작업시 사고 방지 효과를 높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개선남원시연합회가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2050 저탄소 농업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군산경포초교에 ‘JB옐로우 카펫 제2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군산경포초등학교에서 JB옐로우 카펫 제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JB옐로우 카펫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2일 진행된 이날 오픈식에는 군산경포초등학교 김숙이 교장, 이광원 교감, 군산시청 전은성 교통행정과장,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 김복길 경장등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경포초등학교는 백룡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군산 아울렛을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들이 많아 등·하교 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군산경포초등학교 정문에 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사인블록을 사용해 반영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JB옐로우 카펫을 설치



해 학교 주변 통학로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사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희 기자

건협 전북지부, 일회용 컵 탈출 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정규일,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즐거움 일탈(일회용 컵 탈출) 캠페인’을 실시했다.

‘즐거움 일탈 캠페인’은 필(必)환경시대에 맞춰 기후변화 위기극복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날 전북지부 전직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으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개인컵) 사용 ▲카페 음료 테이크아웃 시 텀블러 지참 ▲회의 등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자제 ▲이면지 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등을 선정,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윤성 기자

알림

▲우범기 전주8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시: 26일(토) 오후 4시, 장소: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1(유엔미병원 1층), 연락처: 010-2885-4706

